

**<2018년 8월 1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해 주겠습니다.

어제 하다 만 말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1. 하나님은 각종각색의 개성대로 삶의 길도 주시고, 축복도 해 주신다.
2. 사람은 저마다 개성도, 생각도 다르니 자기 개성대로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산다.
3. 세상에서 보면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정치인, 예술인, 운동가, 종교인, 경제인’ 등 많은 직업의 세계가 있다. 하나님은 각 분야대로 축복해 주시며 역사해 오셨다.
4. 성경에 “때가 되면 개성의 왕들이 된다.” 하는 말씀대로 이 시대는 ‘개성의 세계’가 이루어졌다.
5. 하나님 앞에 사랑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휴거됐으니, 모두 ‘개성의 왕,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먼저는 <그리스도>가 개성의 왕이 되고, 그로 인해서 모두 ‘개성의 왕들’이 되었다. - 이것을 이루었어도, 모르면 모른다. 자기가 했어도, 못 깨닫고 모르면 모른다.
6. <알기 어렵고, 분별하기 어려운 것>은 그때마다 신령하게 기도도 하고, 그 일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면 된다. 그러면 “이것이

맞다!” 하고 확신을 갖게 되고, 더욱 보람과 기쁨을 누리며 감사, 감격하며 살게 된다.

◎ 모두 새벽에 나와 ‘하나님의 시대 공부’ 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섭리의 새벽 학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육을 통해 때에 따라 필요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잘 듣기 바랍니다.

7. <말씀>도 ‘때’ 가 있다.

8. <휴거>도 ‘휴거 직전’ 에는 “곧 열차가 온다. 6000천년 역사의 열차가 온다. 곧 오니 한 눈 팔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 말씀하다가 2015년 3월 16일, 그날 ‘하나님의 극치의 비밀 역사’ 를 도적같이 했다.하나님은 <보낸 자>를 세상에 두 번 보내신다. 첫 번째는 ‘그의 육신’ 이 태어나게 함으로 보내시고, 두 번째는 ‘사명자’ 로 알고 보내신다. 그때는 1978년 6월 1일이 었다.이와 같이 <시대 역사>를 하나하나 보면,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다.

9. <큰 것>은 주인이 가르쳐준다. <주인>이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 고로 <주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라.

10. 세상에 많고 많은 자들이 있지만, <제일 큰 자>는 역시 하나님이 보낸 자로서 그의 사명이 제일 크다.

11. 사람들 중에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냐고 묻는 자들이 많다.

그것에 대해서는 선생도 모른다. 왜? 선생이 성장할 때도 하나님과 성자는 내가 무엇을 할지 안 알려주셨다. 그때 하나님도 성자도 “매일 성실하게 실천해라. 하나씩 깨달아가며 인생을 살아라. 인생을 살아 봐야 된다. 인생을 투자해 보고, 행해봐야 알지 해 보지도 않고서는 모르는 것이다.” 하고만 말씀하셨지, “네가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니 이렇게 해라.” 하지 않으셨다. 행하는 대로 되니, 행해야 아는 것이다.

12. 그러면 또 사람들은 선생에게 묻기를, “그러면 어떤 것을 행해야 됩니까?” 한다. 이 역시도 하나님과 성령님만 확실히 아시지, 선생도 잘 모른다. 다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섭리사의 일을 하는 것, 목회나 선교의 일을 하는 것’ 등 이 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고, 또는 ‘의사, 판검사, 변호사, 학자, 예술가, 운동가’ 등도 하라고 가르쳐 준다. 이같이 가르쳐 줘어도 무엇이 될지는 확실히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했어도 그 역시 ‘하나님’ 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무엇이 될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너희 염려를 하나님과 주께 맡기라는 것이다. <앞날의 진로 문제>를 주께 맡기고 살아라.

13. 선생도 늘 눈물 흘리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실지, 안 쓰실지’ 기도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늘 내게 깊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육신>이 되어 ‘시대의 뜻’ 을 펴고, ‘성서의 예언’ 을 이루며 가야 되는 데도 하나님은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마다 그제서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뤄야 ‘창조 목적을 이루게 하는 자로 보내셨구나.’ 함을 알고, 휴거를 이루니 ‘휴거를 이루게 하는 자로 보내셨구나.’ 함을 안다. 〈행한 것〉만 아는 것이다. 이와 같으니, 너희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날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열심히 노력하고 살아가라.

14. 꼭 재벌가나, 정치인이나, 예술인이나, 특별한 운동가가 돼야 성공한 것이 아니다. 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개성대로 행하면, 이것이 자기 나름의 개성대로 성공했다고 보는 것이다.
- 이것을 찾으면 된다. 〈모시는 자〉는 모시는 사명을 하며 만족하고, 〈섬기는 자〉는 섬기는 사명을 하며 만족하고, 〈씨를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데서 만족하고, 〈거두는 자〉는 거두는 데서 만족하도록 하나님은 저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각종으로 씨 오셨다.〈성공〉이란, 꼭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5. 선생이 연단이 다 끝났을 때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많은 청중들이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나에게 잘했다고 하시며, 사명을 준다고 하셨다. 고로 120 계단이나 되는 곳을 올라가는데, 계속 올라가니 위에 하나님과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셨다. 나에게 큰 접시 같은 것을 주셨는데, 거기 이름이 새겨져 있기를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쓰여 있었다. 그래서 깨닫기를 ‘〈메시아〉같이 전도 많이 하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했다. 또 어느 때는 나를 〈새벽별〉로 보여 주셨는데, ‘새벽 기도를 많이 하라는 것이구나.’ 하고 해석하기도 하고, 혹은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니, 예수님같이 전도

많이 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라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았다.  
자기 사명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16. <이단>은 ‘이단식’ 으로 해석하고, <사탄 주관권>에서는 ‘사탄식’ 으로 해석한다. 그러니 성경에 <동방의 독수리>를 두고 “나는 야곱의 노정을 걸어간다.” 혹은 “나는 요셉의 노정을 걸어간다.” 혹은 “나는 아브라함의 노정을 걸어간다.” 혹은 “나는 14만 4천 무리를 인도하는 자다.” 혹은 “나는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자다.” 하고 해석한다. 오직 <주인>만 알고, 그 사명대로 성경을 푼다.

#### <뇌에 대한 말씀>

17. <뇌 과일>은 ‘신경덩이’ 로 되어 있어서,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가지’ 로 작용을 한다. 그러나 <육체 과일>은 ‘뇌 과일’ 처럼 여러 가지 작용을 못 한다.
18. 운동 할 때도 <뇌 과일>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고 조종하면서 흥분되게 하지만, <육체 과일>은 그렇게 못 한다.
19. 또 <뇌 과일>은 ‘공부할 때’ 도 써 먹지만, <육체 과일>은 오히려 심란하게 하고, 사랑의 상사병이 나게 하고, 공부하는 데 지장만 준다.
20. 저울에 올라가면 ‘몇 kg’ 인지 판단해 주듯, <뇌 과일>은 분

별하고 판단 할 때도 ‘기계’가 되어 분별해 주고 판단해 준다. 그러나 <육체 과일>은 분별하고 판단 할 때 물어보면, 대답이 없다.

21. <뇌 과일>은 흥분시키면서 각종으로 행하게 한다. 그런데 <육체 과일>은 ‘이성 사랑’ 한 가지만 흥분된다.

22. <뇌 과일>은 ‘자동 기계’와 같고, <육체 과일>은 ‘수동 기계’와 같다.

23. <천국>에는 이성 관계가 없다. <육체 과일>도 모양만 존재하고, 전부 ‘뇌 사랑, 정신 사랑’을 한다. - <육체 사랑>보다 백 배, 천 배, 만 배 더 이상적이다.

24. <영의 세계>는 ‘생각, 정신’으로 바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성 관계를 안 해도 자기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마치 향수를 안 마셔도 향수 냄새가 코를 찌르고 진동하는 것과 같다.

25. <영의 세계>는 ‘육의 세계’와 다르다. 실제로 행하지 않아도 <생각한 것>이 ‘실제로 행한 것’이 되어 이루어진다. 곧, <생각 실상 세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에 ‘뇌 과일’을 주신 것이다. 고로 생각하면, 서로 사랑한 것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다.

26. <성약 역사>에 와서 보낸 자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삼위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면, <성약권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 영원한 기쁨을 이루며 살게 된다. - 이 세계는 ‘최고 좋은 세계’ 다. <최고 좋은 세계>는 ‘성약 역사’ 하나다.